전국 최고 지역화폐로 '우뚝'

익산 '다이로움'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자체 선정… 특별교부세 1억원 수여

익산시가 출시한 지역화폐 '다이로움'이 전국 최고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전국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해 운영하는 가운데 전국 최고의 지역화폐 '다이로움'의 성공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도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익산다이로움 경제효과 분석용역'을 실시한 전주대학교 이재민·김현철 교수는 최근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익산다이로움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짧은 기간에 성공적으로 안착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평가는 다양한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익산시의 올해 1월 기준 상품권 발행액은 423억원으로 전국 7위로 집계됐다. 도내에서는 단연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익산보다 인구가 많거나 비슷한 성남, 청주, 포항, 아산 등과 비교할 때 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매우 높은 발행액으로 상품권을 유통·활성화하고 있다. 1월 기준 인구수 93만명인 성남은 578억원, 85만명인 청주는 439억원 등을 발행했다.

이같은 평가를 입증하듯이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익산시 전반적인 시정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도 다이로움이 93.2%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시는 입증된 다이로움의 경제효과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고도화해 명실상부한 지역의 대표 경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가는 "경제를 빠르게 회복하고 활성화시킨 다이로움은 여러 고도화 전략을 통해 지역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공동체를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공모 선정

군산 철길숲 등 도시바람길숲 탄력… 총 53억원 토지 사용료 절감

군산시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주관하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공모에 군산 철길숲(도시바람길숲)이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폐철도 부지 6만691㎡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며, 매년 약 2억6,000만원씩 총 53억원의 토지사용료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다.

도시바람길숲은 작년 12월에 산림청 국가사업으로 선정돼 총 사업비 200억원(국비 100억원, 시비 1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철도 유휴부지 무상사용 선정으로 사정삼거리에서 옛 군산화물역 2.6㎞ 구간의 폐철도에 테마별 명품숲을 조성하는 군산 철길숲과 배후 산림과 녹지축을 연결하는 바람길숲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철도 유휴부지 무상사용 공모 선정은 군산 철길숲이 역사·문화·관광 자원으로써 주민친화적 사업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철길숲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수탈의 아픔을 간직한 옛 군산선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은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폐선부지를 주민친화적 공간이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제안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면 토지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사업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소통의 장 마련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022년 제7대 회장인 강임준 군산시장의 주재로 정기회의를 추진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2012년 10개 섬 지역 시·군이 참여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로 창립한 이후 작년 제2회 섬의 날('21.8.8, 경남 통영)을 계기로 28개 시·군으로 확대, 새롭게 발족한 섬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다.

군산 GSCO(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정기회의는 보령시의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군산시의 제3회 섬의 날 행사, 제15대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여수시의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지자체 간 홍보 및 정보 공유했다.

정기회의에 이어서 섬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이 함께 참여해 섬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신안군에서는 섬발전사업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 효율성 저하,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조속히 일원화할 것을 건의했고, 여수시는 섬 주민 여객선 1,000원 요금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그 외 섬의 발전적인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새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다양한 정책을 논의했다.

제7대 회장인 강임준 군산시장은 "협의회 확대로 우리나라 섬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섬 지자체 간 면밀한 상생협력으로 우리나라 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지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는 군산사랑카드 활성화 및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법인?개인택시회사와 군산사랑카드 택시요금결제서비스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택시요금도 '군산사랑카드'

군산사랑카드 '택시요금결제서비스' 도입 업무 협약식

군산시는 군산사랑카드 활성화 및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법인?개인택시회사와 군산사랑카드 택시요금결제서비스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군산사랑카드 택시요금결제서비스 도입은 택시 이용 시에도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협약으로 군산사랑카드 사용처가 다양화돼 시민들에게는 사용 기회가 확대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수업의 매출이 상승하는 효과가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요금결제서비스는 3월 중 시스템 구축과 사전테스트를 마치고, 오는 4월 오픈할 예정이다.

군산사랑카드는 4개금융기관(농협·전북은행·새마을금고·신협) 74개지점에서 직접 발급 및 충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4만여명(모바일가입자의 30%)이 사용 중에 있고, 연말 정산시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군산사랑상품권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끊임없이 도입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 지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기자

익산시, 'LPG 화물차 신차 구입비' 지원

익산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을 실시한다.

시는 배출가스 등급에 상관없이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2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이전 자동차등록증상 사용본거지가 익산시로 등록된 경유 자동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며 개인 또는 법인 당 1대로 한정한다.

지원금은 조기 폐차에 선정된 대상자에 우선 지원되며 조기 폐차 신차 구매 지원금과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1일 이후로 신차를 계약했거나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지원물량은 244대이며 14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인터넷, 현장방문,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LPG화물차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매우 적은 친환경 차량이며, 2023년 4월부터 관련법에 따라 경유 택배차의 신규 등록이 금지되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익산=이득훈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역 소식통

군산시, 1주일 누적 3만명 확진

1주일만에 군산시 누적 확진자가 3만명으로 증가했다.

16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8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2,594명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3만174명으로 지난 11일 누적확진자 2만명에서, 1주일만에 1만명이 증가했다.

군산에서 확진자가 1만명으로 증가하는데 약 26개월이 걸렸으며, 2만명 증가에 11일, 3만명 증가에 1주일이 걸렸다.

이날 확진된 2,594명 중에는 10대미만이 455명, 10대 433명, 20대 266명, 30대 296명, 40대 382명, 50대 296명, 60대 236명, 70대 119명, 80대 이상이 111명이다.

특히 15일부터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도 코로나19 양성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양성을 받은 건 수는 1,425건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시,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 3월까지 운영

익산시가 자동차세에 대한 연세액 일시 납부제도를 3월에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함으로써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일정 비율 공제 받는 제도로 납부시기에 따라 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새로 차를 구입한 경우 3월에 연납하게 되면 세액의 7.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을 원할 경우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전화(063-859-5632, 5631)로도 신청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전적 혜택이 높은 연납 제도를 신청해 많은 시민들이 세금 할인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